



조병갑 장항동기업인협의회 회장 / 국일문화사 대표

반세기 넘는 인쇄와의 소중한 인연 후배들에게 좋은 전통 물려 주고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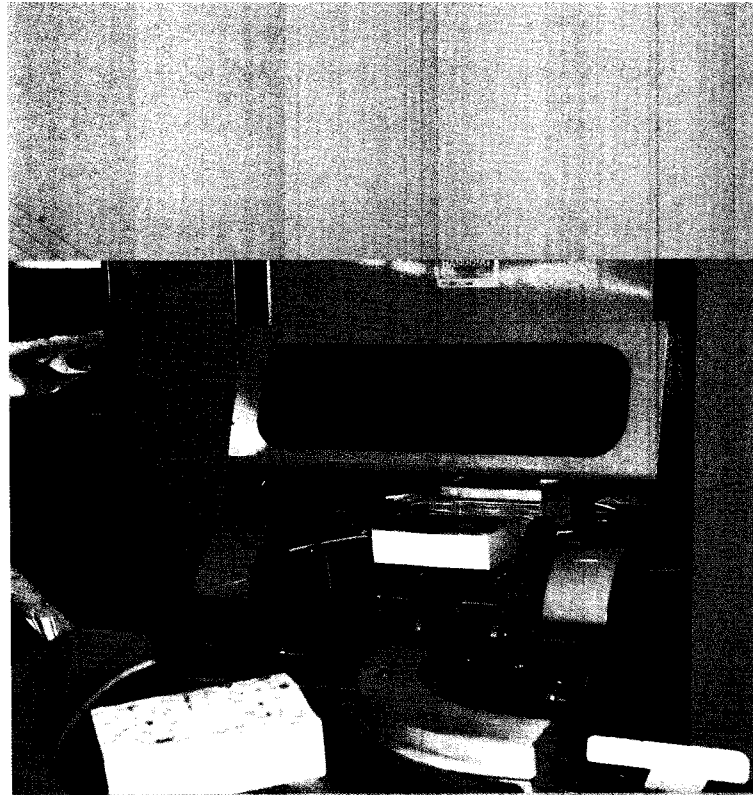
국일문화사의 조병갑 대표가 인쇄업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1957년으로 반세기를 훌쩍 넘겨 54년에 이른다. 실로 긴 세월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조 대표는 국내 주요 인쇄밀집 지역의 하나로 손꼽히는 고양시 장항동의 기업인협의회 회장으로, 또한 국일문화사의 대표라는 현역으로 변함없이 활약하면서 후배 인쇄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영원한 현역이기를 소망하고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조 대표에게 50년 인쇄인생과 최근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장항동 인쇄공단의 준산업단지승인 추진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인쇄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17살이던 1957년에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김상문 회장님이 경영하던 동아출판사에 입사해서 처음으로 인쇄 일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는 분야라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인쇄업을 시작하고 보니 생각보다 재미가 있었던 기억이 남습니다. 아무래도 모르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배운다는 자세로 일을 했고 생각보다는 수입이 좋았습니다. 당시에는 야근을 한번 하기만 하면 쌀 반가마니에 해당하는 수당을 챙길 수 있었는데 이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인쇄업계의 근무여건이 지금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강도가 높았습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1주일이 꼬박 지난 일요일 아침이 되어야 퇴근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이 고되었습니다. 겨우 일요일 하루 쉬고 나서 다시 1주일간의 외박 아닌 외박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런 업무를 참아내면서 일하기에는 17살이라는 나이는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잠시 동안 인쇄업을 떠나는 '이별'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은 야간에 공부를 해가면서 준비한 교사였습니다. 수년간 시험을 준비했고 다행스럽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부임받은 학교가 화전국민학교였는데 현재의 장화동 인쇄단지과 그렇게 먼 곳이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 복선이 깔려 있는 운명이 아니었나 생각하곤 합니다.

다시 인쇄업을 영위하게 된 것은 언제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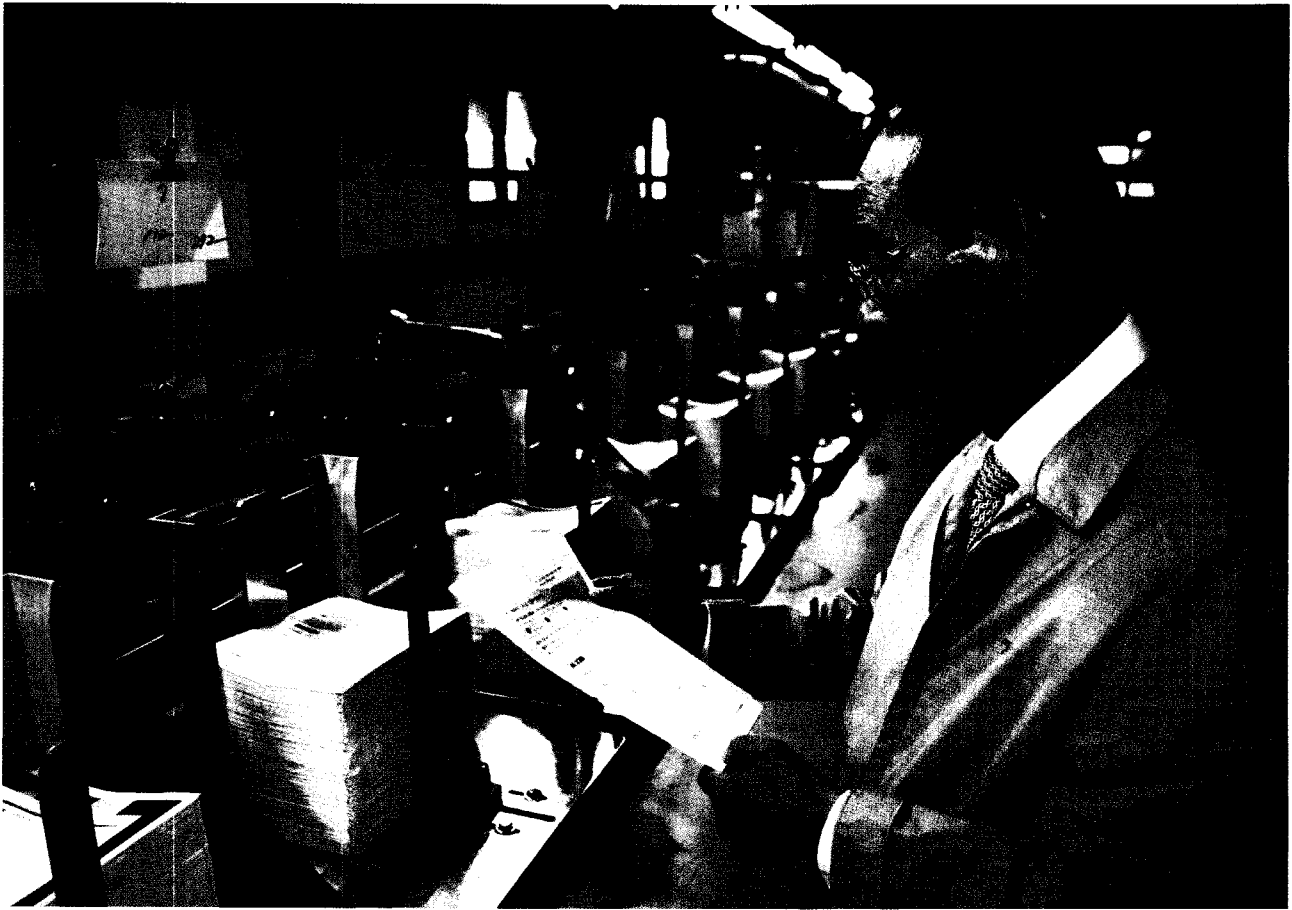
교사직을 3년 만에 그만두고 우연찮은 기회에 주택업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수익성이 워낙 좋았고 순조롭게 사업이 진척되었던 것이 계기였습니다. 그러다 크게 공을 들였던 일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덕분에 여관방을 전전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로 급락했는데 일을 어느 정도 수습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결국은 처음 사회생활을 했던 인쇄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다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 나름대로 몸에 익은 분야라는 점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국일문화사를 지난 1984년에 창업, 올해로 2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활판인쇄업체로 구로동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오프셋인쇄가 급부상하고 활판인쇄가 그 빛을 잃어갈 무렵이어서 교학사와 동아출판사에서 4대의 활판인쇄시설을 인수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비해 뒤늦은 경영이었지만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창업 직후에 인쇄한 '손자명법'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름으로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기계를 쉬 틈 없이 가동해 주위업체들의 부러움 섞인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활판인쇄가 사양화된다고 하던 때였는데 국일문화사는 오히려 성업을 구가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연출한 것이었습니다. 1991년에는 제책 분야에도 진출, 인쇄와 병행하여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제책은 인쇄분야보다 제품 생산과 거래처에 많은 신경을 써야 했고 투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책업에 전념하게 된 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1997년 국일문화사는 마포구 용강동에서 활판인쇄분야를 접었습니다. 오프셋인쇄기를 2대 계약까지 했습니다만 결국 제책업으로 전념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전직으로 제책업을 하게 되는 만큼 작업라인의 경쟁력을 갖추자고 결심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저감을 우선라인을 비롯하여 양장제책라인을 설치했고, 고객의 요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2002년에 현재의 위치인 일산 장항동으로 이전하면서 첨단 KOLBUS 양장라인을 설치해 양장과 무선 제책에 있어서 정상급 작업라인을 갖춘 제책업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활판인쇄제책만큼 최선을 다해 고객의 수익과 만족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쇄업을 할 때의 자부심과 긍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단체에도 그대로 적을 두고 있는데 나이도 있고 해서 많은 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애착심을 갖고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고자 하는 마음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도 사업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믿음을 줘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에 신뢰를 받아야 하는 것이 경영의 기본이자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거창한 것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법무사는 30년 이상 한 곳만 거래하고 있는데 고객과 이런 장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신뢰와 공감대가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맨손으로 시작한 사업이 다시금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고객분들의 믿음이라는 큰 자산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많은 작업물량의 인쇄물이 잘못 나왔을 때, 100% 저희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점도 있었지만 군말 없이 재작업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것이었지만, 고객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신의를 지키겠다는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이를 실행했습니다. 사업이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후배 인쇄인들에게 꼭 들려주고픈 얘기가 있을 듯 한데요.

무엇보다 정직과 성실을 들고 싶습니다. 사실 너무 흔해서 감동이 없을 법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흔하지만 제대로 지

켜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생각하는 방향을 조금 달리해 보면 정직이라는 것을 상대방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동안 사업을 영위해오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기업이 무너질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일을 했을 때가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성실이라는 것도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시키지 말고 회사 직원들과 거래처에 대해서도 자기 일처럼 성심성의껏 처리한다면 진심은 통하게 마련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을 적용한다면 고객만족이 아니라 고객감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깨끗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유경쟁이 원칙인 사회에서 굳이 담합을 할 필요는 없지만 유언비어나 흑색선전, 타사의 상호를 도용한다든가 하는 비인격적인 경쟁을 벌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타사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면 자신도 다른 상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에는 감정적인 단가 인하 경쟁으로 이어져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출혈경쟁이 이뤄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장항동기업협의회의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계신데, 주요 현안과 앞으로 장항동 공단의 청사진은 무엇인가요.

고양시 일산동구 관내 기업인 대표자 50여 명으로 구성된 '고양시장항동기업인협회'는 인쇄·출판기업이 큰 단지를 이루는 장항동 지역의 기업인들이 연대와 친목을 위해 결성한 순수 비영리단체로 지난 2007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의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주변의 이웃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하는 작은 바람으로 매년 기부를 하고 있으며 어버이날을 전후해 수백 명의 관내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도 같이 병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일산동구 노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올해도 지난 4월 25일에 600여명의 관내 노인들을 초청, 경로잔치를 치렀으며 꾸준한 나눔과 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현안인 장항동 인쇄공단의 국가지정공단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해 오고 있는데 현재의 시점에서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고 행정당국간의 조율도 필요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재 난개발된 장항공단이 국가지정 공단으로 거듭나게 되면 주변이 정리되고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쇄업계에 대해 한 말씀하신다면.

현재, 인쇄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제값 받기 운동이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덤핑을 통해서만 일을 해주셔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사의 경쟁력을 키워서 정당한 경쟁을 통해 이겨내어야 하며 이는 바로 경영에 왕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쇄물 제값 받기 운동이 재택업계의 단기도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기대 합니다.

한편으로 인쇄업이 사양산업 또는 3D업종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저는 책을 비롯한 각종 인쇄물은 우리 생활 및 문화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문화창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가집니다. 후배 인쇄인들도 같이 자부심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

김성호 부장 kshuk@print.or.kr

